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만들기, 오부세정

유학렬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I. 머리말

오늘날 일본농촌지역의 자치단체들은 고령화, 과소화 등으로 인한 쇠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각의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농촌경관유지·관리’,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만들기’ 등 각종 농촌지역사회 활성화 시책들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지방자치제도의 전통, 국민소득, 농촌생활환경 정비 수준, 주민참여의식, 지역 리더의 층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제도와 시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드리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지만 일본의 경험으로부터 배워야 할 시사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본 해외출장의 목적은 일본의 선진사례를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만들기’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 있었다. 출장은 2007년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일본의 나가노현(長野県), 군마현(群馬県)을 중심으로 한 4개의 자치단체를 둘러보았으며, 여기에서는 그 중 나가노현 오부세정(小布施町)의 지역만들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II. 사례지역의 개요

나가노현에 속한 오부세정은 ‘밤과 북제(北齋)¹⁾와 꽃의 마을’이라고 불린다. 인구는 약 1만

1) 북제(1760-1849)는 일본의 유명한 풍속화가이며, 1844년부터 1848년까지 오부세정에 살면서 작품 활동을 해왔다. 그 당시 그린 작품들을 비롯한 많은 그림들이 오부세정 시내에 건립된 미술관인 북제관에 전시되어 있다.

2,000명이며, 면적은 19.1km²으로 나가노현의 정(町) 가운데 가장 면적이 작은 곳이다.

예부터 전형적인 농업 중심 지역이었으며, 에도(江戸)시대 후기에는 오부세정을 가로지르는 강을 이용한 해운과 육로를 통한 운송의 중심지로 변장했다. 그 영향으로 부농과 부상들이 다수 출현했고, 이러한 경제적 풍요는 유명한 예술가(화가)들을 이곳으로 불러들일 수 있었다.

오늘날 오부세정의 산업 구조를 살펴보면 3차 산업부문의 비중이 44.6%로 가장 크다. 주요 농산물은 밤, 사과, 포도, 화훼류이며, 특히 6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밤은 품질이 좋기로 유명하여 밤을 소재로 한 다양한 가공품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Ⅲ. 오부세정 지역 활성화의 네 가지 포인트

오부세정의 지역 활성화는 ‘지장산업의 활성화’, ‘정병수경(町並修景) 사업’, ‘문화경관 가꾸기’, ‘꽃의 마을 만들기’라는 네 가지 포인트로 요약할 수 있다.

1) 지장산업의 활성화

오래 전부터 오부세정은 좋은 품질로 정평이 난 밤이 지역의 특산물이며, 밤을 이용한 과자 및 떡 등 가공품을 만들었다. 이러한 가공품들은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춘 이 지역의 중요한 지장산업의 하나이다. 현재 오부세정에서는 7개의 회사에서 밤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다.

여러 개의 밤 가공 회사들 중에서도 지역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눈여겨 보아야 할 곳이 ‘오부세도우(小布施堂)’이다. 오부세도우는 밤을 주원료로 한 소주, 양갱 등의 밤 가공품을 만드는 회사이지만, 단순히 가공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오부세정의 가로 경관 조성·관리, 지역활성화를 위한 일종의 지역만들기(마치즈쿠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싶다.

오부세도우는 관광객들이 지역의 전통적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밤소주’를 만드는 양조장과 상품직매장 등을 개조하여 관람 및 학습공간으로 개방하였다. 또한 오부세의 거리를 구성하는 오래된 건축물을 매입하여 전통적 형태로 개조한 후, 적합한 용도의 지역 공동시설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그 중 하나는 방문자들을 위한 식당과 여관으로 만들어 수익사업을 겸하기도 하였다.

오부세도우는 오부세정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주도하기도 한다. 지역 상가연합회·농협 등과 더불어 오부세의 전통적 문화와 경관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보전하며, 그것을 관광 상품화하여 방문자들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오부세정 지역 뿐만 아니라 오부세도우를 홍보하는 그야말로 win-win 전략이 되었다.

오부세도우를 포함한 여러 밤과자 회사들이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밤의 90%를 가공 공장들이 매입함으로써 밤의 판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며, 둘째로는 지역 주민들이 회사에서 파트타임 근로자로 일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림 1〉 밤 가공품의 예

2) 정병수경 사업

정병수경 사업은 오부세정 전체를 아우르는 경관을 가꾸기 위해 펼치고 있는 사업이다.

1984년부터 민간부문의 여러 주체들이 스스로 협력하고 양보하여 아름다운 오부세정 거리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특히 지역에서 건축업과 조경업에 종사하는 몇몇 지역주민들이 선구적으로 활동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밤 가공회사들도 참여하기를 희망하여 2명의 개인, 3명의 사업자, 행정 등 6개의 주체들이 역할을 나누어 1989년까지 정병수경 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이 토대가 되어 오부세정 행정기관이 경관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지금은 ‘모든 지역 활성화 사업에 경관을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을 오부세정의 주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게끔 되었다.

2006년까지 경관조례는 강제성이 없는 협력 조례에 불과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오부세정 외곽에 맨션 등 고층 건물 짓는 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행정기관에서는 또 주민들이 집을 신축할 때 행정지도를 하지만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런데 2007년부터는 2004년에 제정된 <경관법>에 맞추어 조례를 위반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벌칙을 강화하였다.



<그림 2> 정병수경 사업의 예

3) 문화경관 가꾸기

오부세정 활성화의 세 번째 포인트로는 ‘북제미술관을 중심으로 한 문화경관 가꾸기’ 활동을 들 수 있다. 1976년 오부세정에 북제미술관이 건립되었다. 오부세정과 깊은 인연을 가진 북제를 기념하는 동시에 지역의 자랑거리를 잘 보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당시에 ‘논 한가운데 미술관’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북제미술관을 건립하는 것은 농촌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야심찬 시도였다.

또한 북제미술관 건립은 오부세정이 관광 중심지로 새롭게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후, 북제미술관 주변에는 10개의 크고 작은 미술관들이 개관하였고 북제와 다른 많은 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이 미술관들은 모두 오부세역에서 반경 2km 이내에 있는 것으로 오부세정 중심가의 문화경관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들이다.

4) 꽃의 마을 만들기

1990년대 초 중앙정부로부터 기초자치단체마다 1억 엔의 교부금이 제공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오부세정의 주민들 100명이 유럽으로 '정원 가꾸는 법'을 배우기 위한 연구를 떠났다. 이는 정병수경 사업을 통해 경관에 대한 인식이 고취된 주민들이 서로 협력하여 꽃의 마을 만들기 활동을 전개하기로 뜻을 모은 결과이다.

꽃의 마을 만들기 활동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공원은 행정기관이 주도하여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은 스스로 개방정원(open garden)을 가꾸기로 했다. 여기서 말하는 개방정원이란 일반 개인주택의 정원을 누구라도 둘러 볼 수 있게끔 개방시켜 놓은 정원을 말한다. 행정기관으로부터의 특별한 재정적 지원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며, 현재 약 90개의 개방정원이 조성되어 있다.



〈그림 3〉 개방정원의 예